

한국 청소년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 의사 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Korean
Adolescents Resident in Korea and in America

길 애 진**

Kil, Ae Jin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perceived by Korean adolescents resident in Korea (K-K) and Korean adolescents resident in America (K-A). Subjects were selected from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in Korea (N=555) and counterpart students in Los Angeles (N=296). The survey instruments were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Barnes & Olson, 1982) and FACES III (Bell, Olson, & Partner, 1982).

Major findings were that: (1) K-A adolescents engaged in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more than K-K adolescents. (2) K-A families communicated about their health and life styles more frequently than K-K families, while K-K families communicated about school problems and problems with friends more than K-A families. (3) In both groups, family cohesion was related to family adaptability. That is, when family cohesion was high, family adaptability was also high. (4) When communication styles were open, perceive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was high.

* 본 논문은 1999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가정교육 석사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I. 서론

가족은 인간의 가장 일차적 환경으로 가족 성원의 양육·보호·사회화·정서적 발달은 물론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관계 중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결정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기까지는 가족의 내적인 단합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함께 그들의 관심이 가족으로부터 또래 집단으로 옮겨가고 부모의 지배나 간섭을 벗어나려는 심리적 이유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부모와 청소년기 자식간에 세대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두 세대간에 가치관과 태도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 교육을 통해서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되지만, 문화는 또한 각 세대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일을 경험하고 관찰하는데 있어서 두 세대간이 크게 다르며 이러한 경험과 시각의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이민 가정의 경우 모국의 가정보다 세대간의 갈등을 더 많이 겪으며, 그러한 양상이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더욱 표면화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모국과 그 자식들이 태어나거나 자라는 사회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가족 제도에 관한 가치관과 아주 상이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한 아시아계 가정에서의 권위주의적 자녀교육방법은 심각한 세대 갈등을 초래했다. 가족 및 친척의 유대 관계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이념은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가치관과 큰 대조를 이룬다.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관계를 연구한 민병갑(1995)도 부모가 너무 전통적이며, 자기들에게 한국의 말과 관습 및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응답을 보였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 이민 가정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며, 반대로 한국 이민 가정에서의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문화적 유사성은 두 세대간의 관계를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Communis (공유) 혹은 Communicare(공유성을 이룩하다, 공동체,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공유, 마음의 종합, 공동의 상징이 성립함을 의미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개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일면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Barnes & Olson, 1982), 가족 구성원들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 인식되어져 왔다. 이들 중 Broderick(1979)은 의사소통의 진단적 기능과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가족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1차적 중재로써 의사소통 훈련을 추천하였다. 또한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이 가족 관계 만족도에 결정적이라는 증거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거나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임상 가족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김경화, 1989 ; 민하영, 1990 ; 노성향, 1994) 더욱이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 했을 경우 같은 민족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과 가족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 활동들로 가족의 생존을 위한 가족의 상호

작용(Feetham, 1983)으로써 Galvin과 Brommel (1986)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을 가정의 제1차적 기능이라 분류하였으며 Olson, Portner, Bell (1982)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을 가족의 기능을 진단하는 주요 변인이라 지적하였다. Olson, Russell 및 Sprenkle(1983)은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수많은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의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가족 기능 또는 가족 역동성을 2개의 차원(응집성, 적응력)으로 통합하였고, 각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돕는 의사소통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의 응집이란 '가족 성원들간의 상호의존 또는 심리적 유대'를 의미하며, 가족의 응집성을 진단,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나 변인은 정서적 유대(emotion bonding), 경계(boundaries), 연합(coalitions), 시간(time), 공간(space), 친구(friends), 의사결정(decision making), 흥미와 오락(interests and recreation)의 8가지이다. 이와 같은 8가지 하위 영역에 의해 측정되는 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순서로 가족을 밀착(enmeshed), 연결(connected), 분리(separated), 이탈(disengaged)의 4가지로 구분한다. 이들의 가설은 응집성의 중앙 수준(연결과 분리)이 적절한 가족 기능을 나타내며, 양쪽의 극단적인 수준(밀착과 이탈)은 일반적으로 가족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매우 높은 수준의 응집성을 보이는 가족이 가장 기능적이지 아니라 응집성이 매우 높은 수준(밀착)에서는 가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의 유대감이 너무 높고,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자율성이 제한을 받으며 가족 내에서의 충성과 일치가 강조되는 반면, 응집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탈)에서는 가족원간의 유대감은 낮고 자율성은 매우 높아지므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할 것'을 고무 받고 가족 내의 애착과 참여가 제

한된다. 반면 중앙 수준(연결과 분리)의 적절한 응집력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가족 기능에 가장 공헌적이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에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되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가족의 적응은 상황적, 발달적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 관계(role relationships)나 관계 규칙(relationship rules), 권력 구조(power structure)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 체계의 능력을 의미한다(Olson Russel & Sprenkle, 1986). 가족의 적응성을 진단,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나 변인은 주장(assertiveness), 통제(control), 훈육(discipline), 타협 유형(negotiation styles), 역할 관계(role relationships), 관계 규칙(relationship rules)이다. 이러한 6가지 하위 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순서로 혼돈(chaotic), 융통적(flexible), 구조적(structured), 경직(rigid)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의 기본 가설은 적응력이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응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응성에서도 '적응성의 중간 수준(융통적과 구조적)이 가족 기능을 위해 가장 기능적이다'라는 것이다. 즉 매우 높은 수준의 적응성을 보이는 가족이 가장 기능적이지 아니라 중간 수준(융통적과 구조적)에 속하는 가족 체계는 가족 기능이 효율적인 체계이며, 극단적인 두 가지 수준(혼돈과 경직)에 속하는 가족 체계는 가족의 생활 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행동과 그 적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변화 및 안정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의사 소통과 융통성 있는 민주적인 훈육 방법 및 지도력을 나타내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과 내적 균형을 잘 이루며,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행이 확실하고 분명한 규칙을 확립한다는 것이다(Olson, Russell, Sprenkle, 1986). Baron과 Olson(1982)은 의사소통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역기능적인 수준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을 쉽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Barnes & Olson, 1985)고 하였다. Olson, Russell 및 Sprenkle(1986)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적으로 가족 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며,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균형적인 수준으로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축소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가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를 조사한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모와의 제한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희(1989)의 연구에서도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응집과 적응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부모 자녀간에 애정을 상당히 요구하는 반면, 응집성이 낮은 가족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간에 충분한 애정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응성이 높은 가족은 의사소통 유형을 자주 바꿔 의사소통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배타적이며 특정 유형의 의사소통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볼 때 가족의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일치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응집성 및 적응성의 개념은 임상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정의 주요 기능으로써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파악을 통해,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의 이익·화목과 결속을 중히 여기는 엄격한 규칙을 가진 한국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환경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가정 내에서의 상호 작용과 가족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과 재미교포의 가정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것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민 가정의 세대간 연구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 논문은 대부분이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관찰과 인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질문 내용을 근거로 이민 가정의 가족 관계를 연구한 내용은 거의 없었으므로, 청소년의 질문 응답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영역 및 개방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남·녀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서울·경기·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남자 214명(38.6%), 여자 341명(61.4%)으로 총 555명이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LA에 거주하는 교포 남자 130명(43.9%), 여자 166명(56.1%)으로 총 296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한국과 재미교포 집단 모두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는 19~29세가 각각 50.3%,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 35.7%, 중학생 14.0%, 재미교포의 경우 중학생이 20.3%, 고등학생이 14.9%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최종 학력은 한국의 경우 전체 어머니의 60.9%, 전체 아버지의 53.5%가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었고, 재미교포의 경우 부모의 최종 학력은 대졸이 전체 어머니의 44.6%, 전체 아버지의 55.1%로 한국의 부모보다 교육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66.1%가 재미교포의 56.1%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가정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 53.7%, 재미교포 45.9%가 화목하다고 대답했다. 재미교포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민 시기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재미교포 1.5세)가 84.1%로,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인 15.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재미교포 1.5세의 경우에는 6~10세에 이민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아버지 때 이민한 경우(재미교포 2세)가 전체의 93.6%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2개의 질문지로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는 문항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그리고 이 도구에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첨가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국문과 영문,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국문 질문지의 경우 원문의 내용을 한국의 가족 상황에 적절하도록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민하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영문 설문지의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사용하되 석사학위위상을 소지한 학생들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용의 타당성과 이해도를 검증한 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과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도구는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1982)의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로서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방적인 의사 소통의 영역(open communication)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제한적인 의사 소통의 영역(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으로서 부모와의 의사 소통에 있어 위축되거나 제한된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께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의사 소통을 나타내며 총 점수는 20점에서 100까지 분포된다.

2)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유대를 측정하기 위한 가족 응집성 척도는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과 Wilson (1983) 등이 제작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 FACES II)를 사용하였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는 내용상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16개 문항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14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응집성 척도는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 등 8가지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 관한 16개 문항으로, 적응성 척도는 가족 내의 통제, 훈육, 주장, 타협방식, 역할관계, 관계 규칙 등 6개의 영역과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응집성 및 적응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총 점수는 응집성이 16점에서 80점까지, 적응성은 14점에서 70점까지 분포한다.

3. 연구절차

미국의 경우 1997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

지 미국 L.A 거주 교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시 방법은 연구자가 조사자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7년 9월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시방법은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통계 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개방성 수준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관계, 한국 자녀와 재미교포 자녀가 실제적으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연령,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대화 개방성 점수와, 실제적으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점수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로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과 부모간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영역 중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이성문제 및 성문제로 두 집단에서 부모와 가장 나누지 않는 대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자녀의 진로나 친구 등의 특정한 문제가 부모와의 주요 의사소통 영역임에 반하여, 재미교포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건강 문제나 살아가는 방식 등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재미교포 간의 의사소통 개방성 수준을 보았을 때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미교포 자녀의 경우 개방적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이 전체의 33.8%로, 19.8%인 한국 자녀보다는 부모와 더 많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 자녀는 재미교포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 의사소통을

<표1> 국가별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상관관계

		한 국				미 국			
		응집성1	응집성2	적응성1	적응성2	응집성1	응집성2	적응성1	적응성2
한 국	응집성 1	1.0000							
	응집성 2	0.3980***	1.0000						
	적응성 1	0.8623***	0.3335***	1.0000					
	적응성 2	0.2897***	0.4416***	0.3072***	1.0000				
미 국	응집성 1	-0.0088	-0.0300	-0.0050	0.0191	1.0000			
	응집성 2	0.0446	0.0017	0.0156	-0.0848	0.1840***	1.0000		
	적응성 1	0.0069	-0.0151	-0.0009	0.0031	0.7470***	0.2361***	1.0000	
	적응성 2	0.0487	0.0100	0.0011	-1.0022	0.1693***	0.9549***	0.1997***	1.0000

** p < .01 *** p < .001

- 응집성 1 :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 응집성 2 :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 적응성 1 : 실제로 지각한 가족 적응성
- 적응성 2 :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적응성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차이는 한국과 재미교포 간의 의사소통의 의미과약 체계의 차이이며 이는 언어문화적 환경에 기인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말은 물론 태도, 감정,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의 진의를 알아내는데 익숙한 반면, 미국인들은 상대방이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박의제, 1997). 한국인은 서로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모두 세밀하게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의미과약에서 언어의존도보다는 상황의존도가 높아서 '말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표출보다는 상대방의 추측에 맡기고 '이심전심'에 의존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언어 표출을 삼간다. 반면에 미국인은 매 상황마다 그 상황과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려는데 익숙해서 이들의 의미 전달 체계에서 언어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건강 문제나 살아가는 방식 등 일상적인 주제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재미교포 부모-자녀에 비해 한국인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영역이 진로나 친구 문제 등의 특정한 주제에서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이나, 재미교포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도, 직접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상황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진의를 알아내는 한국인 특유의 의사소통 양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연구 문제 2에서는 가족 체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실제로 지

<표 2> 국가별 의사소통 개방성과 가족 응집성, 적응성간의 관계

	응집성1	응집성2	적응성1	적응성2	한국의 의사소통 개방성
한국의 의사소통 개방성	0.7263 ***	0.2755 ***	0.7207 ***	0.2252 ***	1.0000
미국의 의사소통 개방성	0.2874 ***	0.2583 ***	0.3171 ***	0.2462 ***	0.0868

** p < .01 *** p < .001

응집성 1 :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응집성 2 :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적응성 1 : 실제로 지각한 가족 적응성

적응성 2 :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적응성

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 내에서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간에, 또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 적응성도 높으며, 실제로 느낀 가족 응집성 적응성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적응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있어서 집단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생리학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거주 지역, 생활 환경, 문화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연구 문제 3은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가족과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통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과 재미교포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집단 내의 의사소통 개방성과 가족 응집성, 적응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는 생리적인 공통점보다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생활 환경, 문화 등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개방성이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대화 개방성 정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Barnes와 Olson(1985)이 정상 가족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가족이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타낼 것이라 기대한 것과 일치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김진희, 1989; 민혜영, 1990)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모와의 제한적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지각하는 가족 체계 유형과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가족 체계 유형 사이의 차이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각된 가족 체계와 이상적 가족 체계간 차이가 적을수

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재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을 비교함으로써,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사회 문화적 환경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 555명과 미국 L.A. 거주 청소년 29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에 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생리적인 조건이 같다 하더라도 거주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재미교포 자녀의 경우 한국의 자녀보다 부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한국 자녀는 재미교포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 건강 문제나 살아가는 방식 등 일상적인 주제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재미교포 부모-자녀에 비해, 한국 부모-자녀는 진로나 친구 문제 등 특정 주제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국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재미교포 부모-자녀간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직접 언어로서의 표현보다는 상황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진의를 알아내는 한국인 특유의 의사소통 양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

개방성간의 관계에 있어 한국과 재미교포 집단간 유의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에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뚜렷하다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생리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 개방성이 거주 지역, 생활 환경, 문화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 재미교포 자녀 모두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 적응성이 높으며, 실제로 느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각 집단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방성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은 유의한 관련을 보였고, 부모-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실제로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이상적으로 생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그리고 미국의 경우 L.A.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재미교포 청소년의 경우 이민 1.5세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의 시각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가족에 적용시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화. (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 (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갑. (1995).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정신문화연구. vol. 60. 119-136.
- 민병갑. (1995). 재미교포와 조국과의 관계. **해외동포**, 69, 16-19.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1994). 재미 한국계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감 발달. **성심여대사회과학연구**, 10, 29-43.
- 장민호. (1996). 부모와 자녀에 대한 영향력 원천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ndyce S. Russel.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8, 29-45.
- David H. Olson. (1986). Circumplex Model VII : Validation Studies and FACES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David H. Olson. (1991). Three-Dimensional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David H. Olson, Candyce S. Russel & Douglas S. Russel.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David H. Olson, Douglas H. Sprenkle & Candyce S. Russel.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Howard L. Barnes, David H. Olson.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Robert G. Green, Robert N. Harris, James A. Forte & Margaret Robinson. (1991). Evaluating FACES III and the Circumplex Model : 2,440 Families. *Family Process*, 30, 55-73.